기획시리즈-성인 열전 4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교회 수호자가 된
요셉 (Joseph) 성인

성인명	요셉 (Joseph)
축일	3월 19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마리아의 남편
활동지역	?
활동연도	+1세기경
같은이름	요세푸스, 요제프, 조세푸스, 조세프, 조셉, 조제프, 주세페, 쥬세페, 호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마태 1,19)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이자, 성모 마리아의 순결한 배필인 성가정과 보편 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은 평범한 가장이자 노동자였다. 그는 굳은 신앙으로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이겨내고 무사히 예수님을 양육했다. 교회는 이처럼 주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일생을 헌신한 성인을 공경해 매년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낸다. 그리고 20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이다. 성 요셉 대축일은 원래 19일이지만,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 제4주일과 겹쳐 20일로 옮겨 경축한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온 요셉 신심은 특히 교회가 위기나 혼란에 처하거나 변곡점을 맞을 때 큰 빛을 발했다. 복자 비오 9세 교황이 1870년 12월 8일 성 요셉을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당시 교회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 휩쓸려 로마가 점령되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도 중단되는 위기를 겪은 직후였다. 교황령은 몰수당하고, 교황은 궁에 유폐된 포로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이런 가운데 비오 9세는 공의회 개최 1주년째인 이날 교령 「하느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를 발표해 요셉 성인에게 보호를 청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비오 9세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었고, 그의 기대처럼 보편 교회는 세속 권력은 잃었어도 영적으로 건재할 수 있었다. 이어 레오 13세는 1889년 회칙을 반포해 요셉 성인을 성가정의 보호자인 가장의 모범으로 공표했다.

요셉 성인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가 되고 50년 후, 교회와 세상은 또 다른 위기를 겪고 고통에 차 있었다. 유례없이 많은 인명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에서 인류애와 가정 공동체는 붕괴했고, 사회주의는 날로 세를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1920년 교서 「건강한 선」을 통해 성 요셉을 노동자와 임종자의 수호자로 선포했다. 성인이 묵묵히 본업에 충실한 목수이자, 주님과 성모 마리아 품에서 선종한 유일한 인물이란 이유였다. 교황은 "노동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적인 사회주의 대신, 노동자의 수호자인 성 요셉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이 바로 인간 사회의 핵심이자 기초"라며 "성가정 모범을 따름으로써 개인 도덕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 확산으로 교회가 불안에 시달린 시대에도 요셉 성인은 수호자 역할을 했다. 비오 11세는 1937년 세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교회 운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겼다. 가경자 비오 12세는 1955년 5월 1일 노동절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정했다. 냉전 말기인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성 요셉이 '구세주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교회의 세기적 전환점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도 요셉 신심이 요구됐다. 성 요한 23세는 1961년 성 요셉 축일에 회칙을 발표해 성인에게 공의회를 보호해 달라고 청했다.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주년인 2020년 교회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해 12월 8일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를 발표해 요셉 성인이 다양한 모습을 지닌 아버지이자, 주목받지 않고 신중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의 사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은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써내려가는 이들도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황은 2021년 12월 8일까지 1년을 예수님을 기르신 '성 요셉의 해'로 선포했다.

연도	교황	내용
1870 년	복자 비오 9 세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
1889 년	레오 13 세	'성가정의 보호자이자 가장의 모범'으로 공표
1920 년	베네딕토 15 세	'노동자와 임종자의 수호자'로 선포
1937 년	비오 11 세	'사회정의의 수호자'로 선포
1955 년	가경자 비오 12 세	노동절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 제정
1989 년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구세주의 보호자' 부여
2020 년	프란치스코	'성 요셉의 해' 선포

성령 강림
대축일

2023년
05월 28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베첼라오 티치아노 〈성령강림〉, 1570년경, 유화, 구원의 성모성당, 베네치아.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 화답송	시편 104(103),1ㄱㄴ과 24ㄱㄷ.29ㄴㄷ-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3ㄷ-7.12-13
#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 복음 환호송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복음20,19-23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성가번호	입당 143 봉헌 212 성체 174 파견 150

성 당 소 식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 문명선	- 가족
• 백봉화	- 가족, 어부들마을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오옥순(수산나)	- 정 데레사
• 오병하(마오로)	- 가족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강성기(요셉) 가족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황태진(필립보) 가족	- 김순옥(율리아),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박락준(베드로), 이서형(요안나)	- 김순옥(율리아)
• 이슬아(크리스틴)	- 박락준(베드로)
• 추해웅(오스틴)	- 최현지(안토니아)
• 뜨거운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변상원(제임스) 가정	- 가족
• 서범석(팰릭스), 김유진(마르셀라) 새가정	- 올드브릿지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5/21 주일 헌금 (157명)		$1,220
• 2차헌금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989
• 감사헌금		$250
신부님 $50	박화성 $200	
• 교무금		$2,050
오경선(5-6)	서경호(5-6)	유병기(4-6)
황태진(5-6)	최영찬(5-6)	정마이클(5)
이광호(5-6)	민규란(7-12)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5/19까지 약정 금액은 $38,469.14입니다. 목표액$37,000에서 $1,469.14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전례부 제의와 신부님 제의를 세탁해 주신 백 카타리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장 개인 사정으로 5/21-7/9 주일 미사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 지향 신청봉투와 예물은 주일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평일에 출근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무장에게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평일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732-258-5998)

2차 헌금

• 5월 21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예식 안내

• 6월 11일(주일)오전 9시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를 받는 Gabriel Han, Chelsea Curtis, Teo Kim, Lainey Labanich, Krysten Trinidad 5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획 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썸머셋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주일) 미사후 유병기(베네딕도) 형제님 댁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4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여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10월 22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메타천 주교좌 대성당
St. Francis of Assisi Cathedral

• 등록: https://shorturl.at/fqKSX

• 등록 마감: 10월 6일(금)

예비신자 교리서 제 14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읽어 드립니다.

• 일시: 5월 30일(화) 저녁 8시 30분

• 줌 링크: https://www.zoom.us/j/7323561037

공지사항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일 성당 이용 후 문단속과 소등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 문단속과 소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대회 봉사자 분들께서는 미사 후 성당 내 모든 전등을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정문 바닥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이 화장실 휴지를 변기에 가득 버리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지도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말 씀 의 전 례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3ㄷ-7.12-13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 상 도 움 글

염선율 임마누엘 신부

"성령께서 맺어주신 관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맺고 살아갈 모든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끄실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하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시는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이신 분으로, 이 세상에 '성령'의 도움 없이 맺어진 관계는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관계 안에서 성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202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이었습니다. 43년 전 그날은 사람간의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라는 빛과 독재와 폭력으로 무참히 단절된 관계의 어둠을 동시에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을 앗아가지만 '관계'를 끊어놓을 순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는 이들을 통해 진실은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폭력으로 관계를 짓밟은 이들을 회개시키십니다.

신앙과 일상의 모든 순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관계들. 그것들로 인해 우리 지상 순례가 고단하지만은 않고 행복했었다고,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서로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은총을 청합니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그리고 가장 힘들게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요?

2. '하느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웃' '자기 자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성찰하며, 지금 나와 하느님은 어떤 관계인지 바라봅시다.